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축하 메시지

“대한체육회의 e스포츠 정식종목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e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키워낼 것
- IMF 당시 한류를 촉발한 게임은 지금도 한류 주도하는 킬러 콘텐츠
-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시대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규제나 간섭이 아닌 지원과 조력의 역할을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스포츠가 지난 9일 대한체육회 등급심 의위를 거쳐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이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 의원 모임’ 서른세 분을 포함해, e스포츠의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애써준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e스포츠가 국가 공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면 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의 국가대표가 선발되고 당장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메달도 따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e스포츠 강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유소년 e스포츠단부터 스타 프로게이머까지 체계적인 지원, 육성시스템을 만들겠다고면서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창설해 제2의 임요한과 페이커(프로게이머)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때 추진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2023년 성남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게임을 즐기고 e스포츠가 누구나 누리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 e스포츠는 그 저력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면서, 모든 게 위축됐던 IMF 때에도 혁신적 도약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한류를 주도해온 킬러 콘텐츠라며 게임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게임산업을 대한민국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도록 만들어 e스포츠가 경제 재도약을 이끌 신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면서,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아닌 지원과 조력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미 상무팀 e스포츠 선수단 창설과 함께 강력한 e스포츠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끝>

※담당: 정책본부 선임팀장 이승찬, 문체팀장 최정은